

제1절 민간신앙*

1. 가택신앙(家宅信仰)

민중들의 전통적 가정생활은 집 안 곳곳에 자리한 신들과 함께 이루어져왔다. 문·마루·안방·부엌·샘·곳간·뒤꼍·변소 등 모든 생활공간에 걸쳐 가정을 수호하고 보살피주는 존재로 신을 좌정시키고 신앙화해온 것이다. 집 안에 모셔진 신들의 이름을 보면 안방에 조상이 있고, 대청에 성주, 부엌에 조왕, 장독간에 철룡, 변소에 측신, 대문에 문신 그리고 뒤꼍과 안뜰에 터주(지신)와 업이 있다. 가택신앙은 이렇게 자리잡은 가신(家神)들에 대한 원시종교적 신앙과 여기에 부수되는 일반적인 제사를 가리킨다. 남자가 중심이 되는 유교식 조상숭배의 제사와는 달리 여자(주부)가 제사를 지낸다. 또한 가정 단위의 제사이면서도 조상숭배보다도 일반 신적인 성격이 강하다. 가제나 시제 그리고 당산제가 남자 중심의 제사라면, 가택신앙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 신앙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순천지역의 가택신앙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이곳을 비롯한 전남지역은 전국적으로 가택신앙이 가장 발달해 있었던 곳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두드러지게 약화되어 있다. 조왕이나 조상, 성주처럼 아직도 구체적인 신체를 지니고 정기적으로 제향되는 경우도 남아 있지만, 나머지 신격의 경우는 신체가 없어지고 관념적으로만 믿어지고 있다.

지금도 비교적 널리 믿어지는 신격은 조왕이다. 가택신앙의 약화와 관련된 요소 중의 하나로 주택개량을 꼽을 수 있는데, 조왕의 경우 입식부엌으로 개조된 후에도 싱크대 위에 조왕중발을 모시는 사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뒹뒹단지'라고 부르는 조상의 경우도 최근까지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삼신과 영등의 경우도 얼마 전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믿었다.

여기서는 이 지역의 조상과 조왕신앙의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은 이경엽(李京燁) 집필임.